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이건호 목사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응답하신 기도

- 여호수아 10:6-14 -

-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Ph.D)
- 현) 세종CBMC(기독교실업인) 지도목사
- 현) 순복음대구교회 담임목사



내일의 강사 **장무송 목사**

· 타이페이 쉰디엔교회 원로목사



다니엘기도회 이벤트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포토제닉
다니엘기도회 참석을 알 수 있는 인증샷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다니엘기도회 간증
다니엘기도회 기간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원고를 받습니다.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grace@oryun.org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① 자리 잡아주지
않기



②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③ 음식을 반입
하지 않기



④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⑥ 안내위원에게
협조하기



⑦ 대중교통
이용하기

Daniel
Prayer
Etiquette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장소〉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공평하신 하나님

김혁건 가수 - 이사야 41:10 -



저는 2003년 <더 크로스>라는 록 그룹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고음의 록 음악을 부르는 가수였으나, 지금은 휠체어에서 힘들게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사고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목 위로는 감각이 있으나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직장을 나가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쓰임 받게 해주시고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래를 잘하시던 형님의 꿈을 이어받아 음악을 하게 되었고, 엠넷 뮤직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획사에 들어가 <더 크로스>를 결성하게 되었고, 당시에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제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목이 부러져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긴급히 수술을 하고, 다행히 깨어났으나 그때부터 저에겐 생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누워 있다 보니 몸의 뒤쪽이 다 썩어서,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 썩은 살과 뼈를 긁어내고 24시간을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군에 감염되어 계속해서 열이 났고, 혈액투석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으나 저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혼자서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었으나 이제는 마음이 병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힘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매일 눈물만 흘렸고, 그 무엇으로도 저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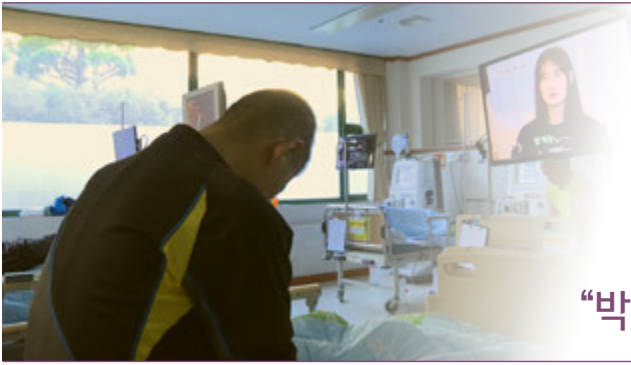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병원 벽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옆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일마다 저를 업고 교회로 가는 친구,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던 순장님과 권사님들.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지금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기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죽고 나서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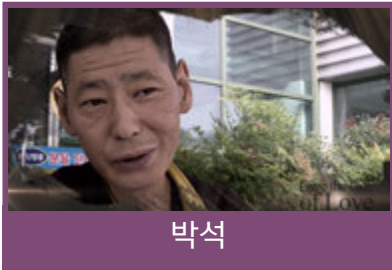
결국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예전처럼 잘 할 수도 없고, 또 노래하거나 말을 하면 고통스럽지만, 저를 통하여 단 한 분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The Prayer>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주시는 구원과 참 사랑을 전파할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영적인 치유를 전하길 원하고, 그분들이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꿈인 줄만 알았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던 음성은 나를 사랑하는 주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제 가슴으로 들으며 주께 나아갑니다.



온혜의강을
나를 통해 흐르리

“박석 성도의 외로운 아픔을 감사 주세요”



박석

처음부터 혼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로 인해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무인도에 있는 듯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서울에 사는 세 명의 누나와 남동생은 병원을 오가는 상황이어서 서로를 돌아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박석 성도(47세)의 이야기입니다.

폐암으로 다섯 번의 항암치료와 수술을 마쳤지만, 가족력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매주 세 차례,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박석 성도는 아픈 곳이 많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라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한

쪽 눈도 보이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치료를 위해 네 곳의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고 가는 일이 매우 힘들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택시운전을 하며 경제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36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사무치는 외로움이 삶을 에워싸고 있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는 박석 성



도. 건강을 회복해 외로운 사람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박석 성도의 꿈을 뜨거운 기도와 다정한 손길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 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륜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륜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1년 6개월,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월, 심한 복통으로 동네 내과를 찾아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내일 아침에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은 대학병원에서는 심장이 많이 망가졌다며, 1년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자”는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2016년 작
년 한해에만 4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병원과 요양
으로 201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학병원과 상급병원 모두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술 전이나 수술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혹시 많이 아프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와라… 당신은 중환자니까 뭐든지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저에게 남은 1년 6개월 중, 1년을 수술로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6개월이 고작이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과 의사선생님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으로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2016 다니엘기도회 때 한 가지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2017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허락하시면 오늘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의사선생님들의 진단에 의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7 다니엘기도회 전인 7월 경에 심장이 멈출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보좌를 울렸다고 확신합니다. 그 분들의 기도로 저는 오늘도 2017 다니엘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냐고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에너지만 주십니다. 건강해지면 교만할 것을 아신 거죠. 저녁 때가 되면 간신히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오늘을 지켜주신 그 사랑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눈을 감을 때에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이 기쁨 따름입니다.

2017 다니엘기도회에서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올해에도 다니엘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년 2018 다니엘기도회에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다니엘기도회에서 꼭 만나요!



정형권 집사 | 강동2교구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일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석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